

제목	섬집 아기		
소속 대학	미디어스쿨	소속 학과	디지털미디어콘텐츠
학 번	2017****	이 름	진**
이메일		연락처	

우리 할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물론 내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정년퇴직하셨지만, 평생을 교사로 살아오셨기에 할머니에게서 선생님의 모습을 쉽게 지울 수는 없었다. 할머니께서는 맞벌이이신 부모님을 대신해 나와 형의 유년 시절 가정교육을 담당하셨고, 한글, 숫자, 예절과 도덕 등 여러 가지를 우리 형제에게 가르쳐 주셨다.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배우기도 전부터 내 옆에는 선생님이 계셨다. 할머니의 가르침 아래에서 나는 무력무력 자라났고 그만큼 할머니의 허리도 점점 굽어갔다.

할머니는 다양한 습관을 지니고 계셨다. 외출하시거나 교회에 가지지 않는 날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최소 세 번 뉴스를 시청하셨다. 청소와 설거지 등 집안일을 끝낸 이후에는 반드시 믹스커피를 타 드셨고,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황사가 심하지 않은 한, 꼭 모든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시곤 했다. 그 외에도 많은 습관을 갖고 있으셨지만 내가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는 것은 바로 노래를 흥얼거리시는 습관이다.

‘노동요’라는 단어가 있듯이 고된 일과와 지루한 업무 속에서도 좋은 음악이나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다. 우리 할머니의 노동요는 찬송가와 동요였다. 점심시간이 지난 한적한 오후, 우리 집은 항상 할머니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건망증이 심해지시고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 냄비를 다 태우실 때도 있었지만, 할머니께서는 본인의 셋리스트와 가사는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여덟 번도 넘게 강산이 변하고 할머니의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만큼은 김포의 들판에서 뛰어놀던 소녀가 되시곤 하셨다.

초등학생 때 내가 제일 좋아했던 과목은 음악이었다. 논리적인 이유는 없었으나 우리 형제가 교회 성가대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졌다.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주말마다 찬송가를 부르고 발성 연습을 했으니 또래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가창 실력이 좋을 수밖에 없었다. 교회의 규모 또한 작지 않았기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일도 잦았다. 음악적인 재능을 타고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학급 친구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거나 움츠러들지도 않고 자신 있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선생님들께는 꽤 인상 깊었던 것 같다.

내가 가창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거나 선생님들께 칭찬받은 일을 전해드리면 할머니께서는 본인 일처럼 기뻐하셨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당연하다.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재능이 있어 보이면 혹시나 영재가 아닐까 기대하는 게 부모다. 우리 할머니라고 해서 달랐겠는가. 수십 년 동안 교사로 일하시면서 나보다 뛰어나고 진짜 재능 있는 학생들을 만나 보셨을 것이다. 그들 중에는 실제로 성악을 전공하거나 노래 부르는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된 사람도 있을 테다. 물론 긴 세월이 흘렀고 그만큼 많은 학생을 만나셨기에 흐릿한 기억만 남아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초등학생이 ‘과수원 길’을 부르는 걸 들으시고 성악가를 권유하신 적은 없을 것이다.

유독 재물을 많이 피우던 손주라서 그랬을까, 할머니는 내게 많은 기대를 하셨다. 그러나 본인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나를 몰아세우거나 집착하시지는 않았다. 할머니의 기대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기에 나는 내가 지키지도 못할 일들을 할머니께 약속했다.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게 되면 맨 앞자리에 앉혀드리겠다. 증손주를 품에 안겨드리겠다. 내가 가이드가 되어 일본 여행을 시켜드리겠다. 구순 잔치 때 직접 노래를 불러드리겠다. 대학에 가도 주말마다 집에 오겠다. 주일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겠다. 밥 잘 챙겨먹고 살도 더 짜워서 다음 달, 아니 다음 주에 또 면회 오겠다.

새벽 네 시 반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장례식장에 도착해서도, 입관 때 눈을 감고 계신 할머니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도, 화장터에서 잣더미로 변해버린 할머니를 건네받은 뒤에도, 모든 절차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저 꿈꾸는 듯 멍했다.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슬프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허무함과 공허함만 느껴졌다. 할머니께서 요양병원에 들어가실 때부터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 짐작한 뒤 다시 일상을 살았다.

2주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뜬금없이 할머니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졌다. 그제야 내가 나의 감정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상실감과 슬픔은 내가 어떻게 다뤄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을 만큼 거대했기에 조금이라도 그 감정들이 휘발되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정말로 준비가 되었을 때, 할머니의 부재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날 이후로도 지금까지 여전히 할머니를 떠나 보내고 있다.

잠 들기 전에 이따금 내일이 올 것이란 사실이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한 건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인지, 어느 것 하나 명확하지 않다. 그럴 때면 할머니가 흥얼거리시던 노래를 떠올린다. 희미해진 기억 속 빛바랜 할머니의 목소리를 재생하면, 어느덧 청수멘션 102호 거실에서 할머니의 딱딱한 무릎을 베개 삼아 낮잠을 청하던 꼬맹이로 돌아가곤 한다.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할머니는 나의 바다다.

※ 선정된 에세이는 자료집으로 제작 가능합니다.